힐링 콘서트 ②

간호, 선비정신을 만나다

환자 마음 돌보며 몸의 건강 보살피는 것
선비정신에 맞닿아 있는 간호사의 길

맑은 마음가짐으로 사랑 실천
공정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

"환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돌보면서 동시에 몸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선비 간호사가 되는 길이다."

부모자녀건강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강연한 김덕환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한국선비연구원 아카데미센터장)는 우리의 전통 선비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간호사의 역할에 접목시켜 눈길을 끌었다.

김덕환 교수는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고 보살피면서 인술을 펼치는 선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옛 선비들은 효도를 함에도 부모의 마음을 봉양하는 '양지(養志)'와 몸을 봉양하는 '양체(養體)'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면서 "환자를 간호할 때 선비정신의 핵심인 '경(敬)'을 체득해 환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돌보면서 몸의 건강을 동시에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선비 간호사가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상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업무에 임해서는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마음에 조금의 사사로움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간호사가 갖춰야 할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김덕환 교수는 성리학적 선비정신의 기틀을 세운 안 향 선생은 '안자육훈' 즉 '효(孝), 충(忠), 예(禮), 신(信), 경(敬), 성(誠)'을 실천하라고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선비정신의 핵심은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경'에서 시작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義)'로 실천하는 데 있다.

'경'은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의 본성을 찾아내 그것을 맑고 깨끗하게 수양하는 수신의 방법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선비정신의 요체이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고, '충'은 자신에 대한 충직과 공정한 마음가짐이다. '예'는 고객에 대한 친절과 배려의 표현이고, '신'은 고객에 대한 신뢰이며, 아무도 보지 않아도 이것들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성'이다.

한편 김덕환 교수는 '명심보감'에 나타난 선비들의 건강 유지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분노가 심하면 기가 상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으면 정신이 손상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수고로워지고, 기가 약해지면 병이 따라서 일어난다. 슬픔과 기쁨이 극도에 이르게 하지 말고, 음식도 양에 알맞게 먹어라. 밤에 술 취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고, 새벽에 성내는 것을 가장 주의하라.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이 하고,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하라. 빈속에는 차를 마시지 말고, 밤중에는 밥을 적게 먹는 것을 통해 정기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충북간호사회 수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충북간호사회(회장·한명자)는 지난 7월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의 200가구에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피해가 심해 생필품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청주시 미원면 일대 100가구와 괴산군 관내 100가구에 이불을 각각 100채씩 전달했다.

한명자 회장은 "이번 폭우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구호물품이 수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대구시간호사회 키르기스스탄 해외봉사

대구시간호사회(회장·박현숙)가 해외간호봉사를 7월 15~22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시간호사회를 비롯한 대구지역 5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메디시티대구 해외의료봉사단'에서 진행했다.

2014년부터 매년 해외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키르기스스탄 오쉬 및 카리수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박현숙 회장을 비롯해 간호사 9명이 참여했다.

대구시간호사회는 세종학당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보르케 고아원 및 양로원을 방문해 아동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손씻기 교육을 하고, 세탁기를 전달했다. 카리수병원 간호사들, 오쉬 지역 병원 간호관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류하면서 한국 간호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보건교사회 30년사' 출판기념회

보건교사 63년, 보건교사회 30년 역사 기록

보건교사회(회장·이춘희)는 '보건교사회 30년사' 출판기념회를 8월 3일 세종호텔에서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후원했다.

이춘희 회장은 "'보건교사회 30년사'는 보건교사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물"이라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교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교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김남초 간협 제2부회장 대독)은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온 보건교사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보건교사회 30년사'가 학교보건이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미래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교사회는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보건교사회 30년사' 발간을 추진해왔으며, 보건교사 63년 및 보건교사회 30년 역사를 책으로 엮었다.

책은 △화보로 보는 역사 : 시대별로 보는 우리의 발자취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보건교육, 학술연구 및 교류, 사회공헌 활동 △보건교사회의 비전과 발전과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화보 △보건교사회 지회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케이크 커팅, 건배제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보건교사회 역사가 담긴 영상이 상영됐으며, 샌드아트 공연이 진행됐다. 보건교사회 발전기금을 기탁한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부산시간호사회 회원 위한 무비데이

부산시간호사회(회장·이영은)는 '간호사 Cheer up을 위한 무비데이' 두 번째 행사를 7월 27일 CGV 서면에서 개최했다. 31개 기관에서 회원 230여명이 참석해 영화 '군함도'를 관람했다.

이영은 회장은 "유쾌한 영화를 보며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아 군함도를 준비했다"면서 "광복절을 앞두고 여러분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첫 번째 무비데이는 지난 4월 25~26일 열렸으며,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관람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 전문의무병' 모집

간호사 면허 소지자 대상 … 한시적으로 간호대학생 2순위 선발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무병'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의무병은 국방부가 군(軍) 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 약사 및 의료기사 인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분야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입영대상자를 의무병으로 모집·선발하는 제도이다. 올해 처음 신설됐다.

모집분야는 간호를 비롯해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 6개 분야다. 입영 후 자신이 속한 의무부대에서 본인의 면허 및 자격,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국방부는 "전문의무병은 올해 5월 입영자를 시작으로 7월 입영대상자까지 총 238명이 선발됐으며, 평균 경쟁률은 2.6 대 1이었다"면서 "지난 6월부터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는 38명, 간호대학생은 25명이 선발됐다.

간호분야의 경우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1순위로 선발하고,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재학생을 2순위로 선발했다. 1순위자는 기초군사교육(5주) 후 즉시 부대에 배치되고, 2순위자는 기초군사교육(5주) 및 해당 전문분야 병과교육(4~5주) 후 부대에 배치된다. 관련 면허가 필요한 의료보조행위에는 1순위로 선발된 전문의무병만 투입된다.

전문의무병 매월 모집계획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협 중앙간호봉사단 '봉사대장정' 실시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은 '2017 간호봉사대장정'을 7월 15~16일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서 전개했다. 중앙간호봉사단은 2003년부터 매년 간호봉사대장정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봉사활동에는 중앙간호봉사단 소속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30여명과 함께 의사·치과의사·약사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제보건의료재단, (사)함께하는 사랑밭, 백운면사무소가 후원했다.

봉사단은 백운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준비해 간 떡과 음료, 가정상비약 100세트를 전달했다. 독거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봉사도 펼쳤으며, 고령의 어르신 40가구에는 멀티비타민을 전달했다.

강연태 백운면장은 "우리 지역을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농촌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허정인 중앙간호봉사단장은 "간호의 정신인 돌봄을 실천하는 데 봉사단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경기도 요양병원 간호사 역량강화 세미나

노인간호사회(회장·최귀윤)는 경기도간호사회(회장·김인자)와 공동으로 '경기도 요양병원 간호사 역량강화 세미나'를 9월 8~9일 KNA연수원에서 개최한다. 경기도 요양병원 간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요양병원 간호조직 운영 사례'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 '2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 사례' 등 주제강의 및 분임토의가 진행된다. 8월 20일까지 100명 선착순 모집. 사전등록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jsbalagi@naver.com) 접수.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kgna.kr) 참조. 문의 010-6385-2401.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제10회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8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일반·생애·영유아·암·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jeh@nhis.or.kr) 또는 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9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nhis.or.kr) 참조.

경기도 수원시간호사회 회원 위한 특강

경기도간호사회 산하 수원시간호사회(회장·박미미)는 회원들을 위한 특강을 '사진으로 떠나는 전국 맛 투어' 주제로 7월 18일 개최했다.

회원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맛집을 주제로 유지상 씨알트리 대표가 강연했다. 사진과 함께 지역별 음식의 특성과 음식점의 역사 등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박미미 회장은 "앞으로도 좋은 강연을 마련해 회원들이 의미 있는 교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특강을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29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시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7.7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학원직강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강의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강 연중 무중단 진행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8 연세대 RN-BSN

db 대방열림 개강일 : 7월 8일 / 선착순 60명 접수중 노성신 교수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직강 및 동영상 강의 진행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3번출구 빌스 우측건물(1층 피자헛,2·4층학원) www.yulimgosi.com